

韓日經濟協會 30年史

－ 韓日經濟交流의 발자취 －



社團
法人

韓日經濟協會

목 차

발 간 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06
축 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08
	권철현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10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12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14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15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16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한일경제협회 고문	17
	무토 마사토시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18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20
회 고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 삼양사 그룹회장	22
회 장 단	한일경제협회 회장단	26
화 보	한일경제협회 30년 화보	29
제 1 장	한일경제협회와 한일 경제협력	
	1. 한국경제와 한일관계	92
	2. 해방 이후 한일경제협력의 전개	94
	3. 한일경제협회 설립 의의	96

Contents

제 2 장	한일경제협회 설립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 : 1945~1980	
	1. 민간 협력의 네트워크와 한일 경제협력	100
	2. 해방 이후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 경제교류	101
	3.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105
	4. 한일 경제교류와 민간 경제인들의 활동	107
제 3 장	한일경제협회의 창립과 한일 新 시대의 전개 : 1981~1987	
	1. 한일 경제협력의 전환	120
	2.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한일 경제협력	121
	3. 한일경제협회의 창립	124
	4. 한일 신 시대와 경제협력의 전개	128
	5. 소결 : 대일 경제협력 창구의 일원화와 민간경제협력	146
제 4 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와 한일 경제협력 : 1988~1998	
	1.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일 경제협력	148
	2. 민주화 및 세계화에 따른 경제정책과 대일 경제협력	150
	3. 일본의 경제위기, 경제개혁과 한일 경제협력	159
	4. 한일경제협회의 주요 사업과 성과	163
	5. 소결 : 경제협력의 다원화와 제도화	189
	6. 인터뷰 : 신덕현 한일경제협회 전 전무이사(1988.2~2001.9)	191

제 5 장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 경제협력 : 1998~2005	
	1. 위기와 개혁의 시대	198
	2. 1997년 외환위기와 대일경제관계	200
	3. 일본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	211
	4. 한일경제협회와 양국 경제협력	215
	5. 소결 : 한일 경쟁 구조에서의 협력	249
제 6 장	글로벌 경제위기,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일 경제협력 : 2005~2010	
	1. 경제위기 이후의 한일경제	252
	2.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대외 경제정책	255
	3.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일경제	261
	4. 한일경제협회의 활동	268
	5. 소결 : 다차원 협력의 필요성	308
제 7 장	한일경제협회 30년의 회고와 비전	
	1. 한일경제협회의 성과와 회고	314
	2. 한일경제협회의 도전과 과제	317

Contents

자료집

한일경제협회 연표	324
한일경제협회 정관	386
회장단 및 임원 재임기간	392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 개최실적	396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실적	503
방일수출촉진단의 일본 주요 정재계인사 방문실적	514
참고문헌	520
편집후기	522

본 지의 기술은 원칙적으로 2011년 2월 12일을 최종시점으로 하였다.

동아시아의 번영과 세계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한일간 협력의 길을 열어 나가야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에 힘써 온 한일경제협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 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을 더욱 견고히 하자는 의미를 담아 <한일경제협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일경제협회는 지난 1981년 창립된 이래 끊임없이 무역투자, 기술협력, 인적교류를 비롯한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특히 일한경제협회와 파트너를 이루어 매년 개최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상호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호를 도모하는 장으로서,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세기 들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룸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큰 파란 속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NAFTA, EU 등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경제의 3대 경제권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앞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도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신흥국 중 최초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중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역내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이루는 기구가 마련되면 이 지역의 광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고, 정치·외교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다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언어, 그리고 정치제도와 경제 발전단계 등 모든 면에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이 합심 협력하여 견고한 파트너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반의 협력기구로 키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지진에 대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한일이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 되고 양국 관계가 돈독해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이제 한일은 세계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양국 경제가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통합의 수준을 지향하는 FTA를 체결하여 양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 문화적인 근접성을 반침삼아 양국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공사례와 같이 국제무대에서도 한일이 공동의 보조를 취하게 되면 두나라의 협력이 더욱 큰 힘을 얻게 되고, 명실공히 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경제계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는데 앞장섬으로써 한일 양국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협력체를 이루는데 이바지 하며 나아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협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파트너로서 굳건한 우호관계를 다져주시는 일한경제협회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30년의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내다보며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올해는 한일 민간경제협력의 모태로서 양국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온 한일경제협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공자께서는 <논어(論語)>에서 30세를 ‘이립(而立)’ 이라고 하여 모든 기초를 세우고 스스로 세상에 서는 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일경제협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불행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의 초석을 놓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산업근대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가 중심이 된 한일경제협회는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한일경제인회의와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양국 정부와 업계에 전달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1971년 부터 40년째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한일경제협회가 정부와의 협조하에 양국간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온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의 30년에도 한일경제협회가 양국간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양국은 각각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

축 사

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는 역내 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해 한일FTA를 체결하고 첨단신소재,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한일 협력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일경제협회 30년사』의 발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한일경제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일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자

주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대사 권철현



한일경제협회가 올해로 30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1년 경제4단체 등 우리 경제계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한일경제협회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교역 및 투자장벽 해소, 기업간 협력, 인재교류, 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주일한국대사로서 저 또한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모이는 계기에 관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한일경제협회의 여러가지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간의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친밀해졌습니다. 작년에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 느끼는 호감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높다는 사실이 양국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전 불이 당겨진 한류의 열풍이 이제는 우리 드라마뿐만 아니라 가요, 한류아이돌 등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김치, 막걸리 등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 또한 일본국민들의 인식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째였던 작년에는 이러한 상호협력의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 일본정부 스스로 간 총리 담화 발표와 총독부를 통해 반출된 조선왕조의 궤 등 우리 도서의 반환을 약속하는 등 과거사 청산과 미래공동번영을 위한 여러가지 반가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또한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 교역규모는 920억불을 넘어서 지금까지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리만사태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이 일본정부, 기업,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기량 있는 인재풀, 경영 및 마케팅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일본의 아성을 바짝 추격하는 경쟁자이자 파트너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과 일

축사

본처럼 서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적 인연으로 묶여있는 인접국간에 기대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잠재력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 양국 간 경제협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역량을 새롭게 평가하고,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작년에 361억불을 넘어선 양국간 교역불균형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기업과의 자본제휴에 나서서 시장확대의 이익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제 두 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단순한 부품소재 수출입 상대국이라는 협소한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협력의 지평을 넓혀서 강력한 동아시아경제권의 동업자로서 세계를 향해야 할 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묶은 매듭은 기업 스스로 ‘경제’라는 언어를 통해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경제협회가 중심이 되어 더 많은 협력을 낳고, 더 많은 대화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주일한국대사관 직원 모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진심어린 지원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30년을 기획하고 기약하기를



POSCO
명예회장 박태준

신묘년(辛卯年) 새봄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협회의 출범과 더불어 초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뜻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 양국은 간헐적으로 돌출했던 불편한 사건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괄목할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도정(道程)에서 실질적이고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양국 경제인과 한일·일한경제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일본측에서는 이미 1960년에 일한경제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만, 해방 후에 단절되었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진전한 계기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무역증대, 기술협력, 경제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9년 처음으로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현재의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었고, 그때부터 해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대표 30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할 촉매 역할을 해왔습니다.

1969년부터 십여 년에 걸친 한일 경제협력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모범 사례는 포스코일 것입니다. 당시 철강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기술과 경험과 자원이 전무한 최악의 환경을 이겨내며 세계 굴지의 철강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는 일본측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스코가 십여 년의 대역사를 통해 포항제철소를 완성한 기반 위에서 광양제철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1981년 2월, 한일 양국 경제계의 건의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 창구를 담당할 한일경제협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경제협회 창립은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와 진전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일본에는 나카소네 내각이 출범하여 한일 신시대를 개막한 그때, 한일 경제협력의 성격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원을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을 학습하는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 대부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자본투자의 단계를 넘어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전, 공

동연구와 공동개발, 산업간 상호협력 등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한일경제협회는 그러한 변화와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양국 경제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탄생했으며, 그 존재의 이유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저는 초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양국 청소년들의 인적교류 사업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주역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청소년들이 드디어 한일 교류의 주역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제 양국의 젊은 세대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른바 ‘혐한증(嫌韓症)’이 사라진 대신에 ‘한류(韓流)’가 뜨거운 형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3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일관계의 성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협력과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일경제협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30년을 기획하고 기약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30년의 기획은 G2로 급성장한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한·일·중 삼국의 주도에 의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경제협회가 ‘새로운 30년’의 희망을 기약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은 그 변화와 도약의 중심에서 과거 30년보다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며, 한일경제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경제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양국의 역대 회장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보내 드리며, 이 협회의 30년 역사가 신묘년 새봄의 약동하는 기운을 듬뿍 받아서 장차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날의 소중한 발자취를 담은 「한일경제협회 30년사」가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협회 관계자와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양국은 때로 불편하고 소원한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서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교역, 투자, 기술 등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교 당시 연간 2억 2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그동안 400배 이상 늘어나 오늘날에는 9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 출범한 한일경제협회는 두 나라의 경제협력 강화와 우호친선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2회에 걸쳐 매년 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양국을 교차 방문하면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 간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알선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서 한일 양국은 선의의 경쟁과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공동 번영과 경제계 간의 이해 증진에 큰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협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의 발간을 축하하며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일



1981년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출범한 한일경제협회는 지난 30년간 한일경제인회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교류와 대화의 장이자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조석래 회장님과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측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지리는 변하지 않는다(Everything changes but geography)’는 말이 있습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의 가까운 관계를 잘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범위가 부품·소재 협력을 비롯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해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인이 늘고 있으며, 일본의 첨단 패션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하여 런던·피츠버그·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에 합의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울과 요코하마에서 잇달아 열린 G-20 정상회의와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환율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에 주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제도화된 협력, 예를들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중·일 FTA를 통해 동아시아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켜 나아가 하겠습니

다. 한일경제협회가 양국 간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고 미래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변함없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또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의 역사를 후세에게 들려줌으로써 사료 역할을 해 줄 ‘한일경제협회 30년사’ 발간 또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일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 한일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디딤돌 역할을 위해 1981년 설립한 한일경제협회가 어느새 서른의 나이를 맞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일본은 한국의 2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여 최근의 한류열풍에 이어 현해탄 아래로 해저터널 건설이 검토되는 등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그야말로 친밀한 이웃나라로서 세계경제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경제협회는 과거 부진했던 양국관계에 있어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고 아울러 지난 30년간 한일경제인들의 등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정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고교생교류사업 등 양국간 인적교류 사업은 양국 국민들이 지난날 높았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일경제협회는 양국 경제인들에게는 친선도모와 경제교류 촉진 등 대화의 장을,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는 상호이해와 우호의 장을 제공하는 등 경제협력을 뛰어넘어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신아시아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연평균 7%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투자의 40%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한일경제협회 역시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 더 성장·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한 세대를 이어온 한일경제협회가 앞으로 양국 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써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기대하며, 그간의 한일 교류협력을 위한 협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3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기반 마련에 힘써주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희범



축
사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 매진해 온 한일경제협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년 간 한일경제협회는 한·일 양국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경제난관에 적극 대처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이해 및 우호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양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한일경제협회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21세기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외투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경총은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외투기업 지원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용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기반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일경제협회의 사업방향도 보다 발전적·선도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30년사 발간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한일경제교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국의 경제협력에 애써온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 간행에 즈음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금번 (사)한일경제협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 협회는 일본의 (사)일한경제협회와 더불어 「일한경제인회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일한 양국 경제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획을 긋는 해의 후반에 이러한 서책의 작성에 착수하여 지금까지의 일한 경제관계 100년사를 조감해 보는 것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본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다섯 번째의 한국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디만, 일한병합 10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의 마지막 대사로서, 또한 새로운 일한관계의 100년을 맞이하는 최초의 대사로서 일한 관계가 장래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한 역할이야 말로 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가슴에 새겨 왔습니다. 금번 간행되는 이 기념지가 실로 그 비전을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귀 협회가 설립된 1981년은 한국이 서울 올림픽 유치를 이루고 바야흐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한국경제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일한관계도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공, 단기비자의 면제, 「한류」 붐 등에 힘입어 양국 간을 왕래하는 일한 국민은 지난 30년간, 실로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연하게도 일한 무역규모도 동일하게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은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 일본에서 APEC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된 해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2년에 핵 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및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일한 간의 EPA/FTA, 환경, 에너지, 제3국 지원이라는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일본과 한국에 더욱 많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경협차관(엔 차관)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긴밀히 해온 일한 양국은, 재작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등 제3국에서 공동으로 경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유



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를 향해 공동작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한 EPA/FTA 협상은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채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업의 약진 및 동아시아 등과의 FTA 진전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작년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한 EPA/FTA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60~90% 이상에 달하는 등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2011년이 일한 EPA/FTA 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일경제협회 30년사」의 간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동시에 귀 협회와 일한 경제관계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의 축하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서적은 한일경제협회의 기념비에만 머물지 않고 일한 경제교류사의 귀중한 사료로서 향후 몇 십 년 혹은 그 이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의하여 읽혀질 것입니다. 100년 후의 우리 일한 양국의 후손들이 이 「30년사」라고 하는 이름의 타임캡슐을 손에 들고서 어떠한 감회에 잠기게 될런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韓日經濟協會30年史」刊行に寄せて

駐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武藤正敏

今般、(社)韓日經濟協會におかれましては、設立30年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したことを心からお慶び申し上げます。貴協会は、日本側の(社)日韓經濟協會とともに、「日韓經濟人會議」をはじめとした各種行事の開催等を通じて、日韓両国の經濟界の紐帶を強めることに大いに寄与してこられました。

また、2010年という節目の年の後半にこの書物の作成に着手され、これまでの日韓の經濟關係100年史を俯瞰するとの試みは、新たな100年を見据える上でも、非常に意義深いことと存じます。私は昨年8月、5回目の韓国勤務をスタートしたところですが、日韓併合100年を迎える上での最後の大使として、また、新しい日韓關係の100年を迎える最初の大使として、日韓關係が将来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よく考え、その基礎を作るための橋渡しこそが自らに与えられた使命と胸に刻んで参りました。今般刊行されるこの記念誌が、まさにそのビジョンを描く上で、極めて貴重な示唆を与えてくれ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思い返せば、貴協회가設立された1981年といえば、韓国が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誘致を成し遂げ、いよいよ世界の注目を集めた年でありました。それから30年間、幾多の苦難を乗り越え、韓国の繁栄を築きました。日韓關係も、2002年ワールドカップ・サッカー大会共催の成功、短期ビザの免除、「韓流」ブーム等の勢いを受け、両国間を往来する日韓國民は、この30年間で実に7倍以上の増加となっています。日韓の貿易額も、偶然にも、同じく7倍強の増加となっています。

昨2010年は、韓国でG20サミット、日本でAPEC首脳會議といった國際會議が立て続けに開催された年でした。さらに、韓国は、2012年に核セキュリティ・サミットや麗水万博を開催する予定であるなど、國際社会での役割を飛躍的に拡大してきており、これに伴い、日本と韓国は國際社会において一層重要なパートナーになっています。とくに、經濟分野においては、今後日韓の間でEPA/FTA、環境、エネルギー、第三国への支援といった幅広い分野での協力を一層進め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時代は、日本と韓国に、ますます多くの未来志向な協力關係を求めています。80年代に円借款を通じて友好を深めてきた日韓兩國は、一昨年の韓国のOECD・DACへの加盟を経て、アフガンやカンボジアなど、今や第三国に共同で經濟協力を行うことで、その絆をますます強め、世界に向けて共同作業を開始しているのです。

一方で、日韓EPA/FTA交渉は、残念ながら2004年11月以降中断した状態が続い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近年の韓国企業躍進や、東アジア内外におけるFTAの進展といった環境の変化にとともに、昨年の各種世論調査では、日韓EPA/FTAを肯定的にとらえる見方が6割~9割以上に達するなど、機運は次第に高まりを見せています。本2011年が、日韓EPA/FTAの締結において決定的な進展がなされる年となることを確信し、また期待しております。

最後に、「韓日經濟協會30年史」の刊行を改めてお祝い申し上げるとともに、貴協會と日韓經濟關係の益々の發展を期待し、私のお祝いの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書籍は、韓日經濟協會の記念碑にとどまらず、日韓經濟交流史の貴重な史料として、今後数十年、あるいはそれ以上の長きにわたり、多くの方々によりひととされることでしょう。100年後の我々日韓兩國の子孫たちが、この「30年史」という名のタイムカプセルを手にとって、どのような感慨を抱くことになるのか...。大いに氣になるところです。

‘한일경제협회 30년사’ 간행에 즈음하여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시어 ‘한일경제협회 창립 30주년사’를 간행하심을 일한경제협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일한 양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양 협회의 주요 사업인 ‘일한경제인회의’는 2010년 4월의 제42회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했으며, 양국 정부에 수 많은 건의를 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진지하고도 알찬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역시 양 협회 간의 강력한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봅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교류사업인 ‘일한고교생교류캠프’ ‘일한학생미래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의 손으로 차세대의 양국 간 가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지금부터 25년 전의 제철플랜트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 한국분들과의 깊은 사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기업/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발전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시던 한국 관계자분들의 모습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부단한 노력이 오늘날 한국 산업계의 눈부신 약진으로 이어졌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간 한일경제협회가 양국 경제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산업계를 리드해 오셨음에 대해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향후 경제 협력 관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조하에 지구환경 문제, 자원/에너지문제 등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고, 양국 이외의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새로운 조류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때로는 흡수하여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 구축이 종전 이상으로 중요해지리라 봅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이 진정한 이퀄 파트너로서 가일층 관계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 협회가 손을

맞잡고 민간 입장에서 강력하게 서포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경제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축하 인사로 대신합니다.

「韓日經濟協會 30年史」刊行に寄せて

社団法人 日韓經濟協會
会長 佐々木幹夫

このたびは創立30周年を迎えられ、「韓日經濟協會創立30周年史」を刊行されるにあたり、日韓經濟協會を代表致しまして、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この30年の間、日韓両国は多くの困難に直面して参りましたが、韓日經濟協會と日韓經濟協會は、常に手を携えつつ共に歩んで参りました。

例えば、両協會の主たる事業である「日韓經濟人会議」につきましては、2010年4月の第42回會議に至るまでこれまで一度も中断することなく開催し、両国政府への数々の提言を含め、日韓經濟交流拡大のための真摯な中身の濃い議論を続けて来ました。これも、一重に両協會間の力強い連携があったからこそ、と思います。

また、人材育成交流事業である「日韓高校生交流キャンプ」、「日韓学生未来會議」を行って参りましたが、これは両国經濟人の手によって、次世代の日韓のかけ橋となり得る多くの若者達を育ててきた、という点において大変意義があるものと思料致します。

私事ですが、私と韓国のご縁は、今から25年前の製鉄プラントビジネスであり、それ以来韓国の皆様との深いお付き合いが始まりました。政府・企業・国民が一体となった經濟発展に懸ける思いと、その為に努力して居られた韓国の関係者の皆様の姿に大変感銘を受けました。このような皆様の不断のご努力が、今日の韓国産業界の輝かしい躍進に繋がっている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こうした中、韓日經濟協會が、日韓両国間の經濟人の活発な交流を図りつつ、幅広い分野で韓国産業界をリードして来られましたことに、改めて敬意を表する次第です。

さて、韓国企業のグローバルな活躍が目立っている中、今後の両国の經濟協力関係は、新たな段階を迎えていると考えます。日韓が協働して、地球環境問題や資源・エネルギー問題などグローバルな課題に取り組み、日韓以外の地域及び国々の発展に貢献していこうとする新しい潮流も生まれております。お互いの長所を認め合い、ある時は吸収し、双方がウィン・ウィンになるような協力関係を築くことが、今まで以上に重要になってく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アジアの先進国である日韓両国が真のイコール・パートナーとして、更なる関係強化と発展が図られるよう、今後とも両協會が手を携え民間の立場から強力にサポート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韓日經濟協會の今後一層のご発展、ご繁栄を祈念申し上げ、お祝い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한일경제협회 30년을 회고하며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Q. 회장님께서 IMF 직후인 1998년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재임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A. 제가 한일경제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입니다. 저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박용학 전임회장의 뒤를 이어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일경제협회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장이 한일경제협회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박태준 회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대전상공회의소에 출장 중이었던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일경제협회 회장 취임을 부탁하신 바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1998년은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협회의 운영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한일경제인회의가 1998년 4월에 일본 미야자키(宮崎)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로 무산되거나 많은 수가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4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야자키까지 직항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기로 1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것에 일본측은 매우 놀랐습니다. 또 10여명의 임원단은 동경에 들러 총리대신, 외무대신, 통산대신, 재무대신 등을 예방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측 인사들을 만나면 경제위기 가운데 120여명의 한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한 열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Q. IMF 경제위기 이후 한일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셨던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A. 양국 경제발전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양국 협력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강건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당시 일본은행은 한국이나 태국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분위기였고 일본의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일 투자유치단과 방일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습니다. 1998년 한일경제인회의가 끝나고 그 해 5월에는 후지무라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직접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방한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투자유치단과 함께 경인지방과 대전의 공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일본의 대한 투자촉진 활동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부품소재 사업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일 경제협력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역역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부터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한일경제협회에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사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양국 기업들이 부품소재 산업 협력을 위해 교류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 청소년 교류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학생 중심으로 교류가 있어왔는데 2004년부터는 양국 고교생들이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매년 양국에서 50여명씩 참가하고 있지요. 양국 청소년 교류는 미래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일경제협회가 한일 경제협력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한일경제협회 설립에는 박태준 초대회장님의 공로가 매우 큼니다. 일관종합 제철소인 포항제철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킨 것은 박태준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신화를 일구어낸 것이지요. 한일경제협회도 박태준 초대회장님의 인맥과 헌신으로 설립되어 양국 경제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당시 한일경제협회에는 한국의 대표적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일류 기업의 총수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박태준 회장님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설립 공로가 박태준 회장님에게 있다면 열성적으로 협회활동을 추진하신 분은 박용학 회장님이었습니다. 박용학 회장님은 특유의 열정과 인품, 그리고 인맥으로 한일경제협회의 활동을 한층 발전시킨 분이십니다. 외모도 출중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인맥도 넓으셔서 실질적으로 한일경제협회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 장본인이 아니신 가 생각합니다.

이런 두 분의 뒤를 이어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게되었으니 전임 회장님의 업적에 흠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한일경제협회와 더불어 한중민간경제협회의 회장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3년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회를 겸임하게 된 것이지요.

Q. 한일협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한일 협력관계의 핵심 문제는 무역역조였습니다.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라 쉽게 해소될 수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흑자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FTA 문제가 논



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보다 일본측의 문제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본이 국내문제를 정리하고 협상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FTA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중·일 FTA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의 일본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A. 요즘 일본 언론이나 잡지에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도요타가 삼성을 배워야 한다거나 하는 보도 들이지요.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성과가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의 장점을 잘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성실하고 노력하는 성품은 여전히 일본의 강점입니다.

Q. 한일경제협회의 장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양국간 인맥과 신뢰의 기반을 축적해서 점진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농구나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면 현재의 감독의 성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승리는 과거 오랫동안의 훈련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한일 관계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기초가 튼튼해야 미래 관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태준 초대회장, 박용학 2대 회장과 제 임기를 지나는 동안 새로운 양국 관계의 환경에 부합하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경제협회 임원과 직원, 그리고 회원사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한일경제협회 회장단(2011.2.12 현재)

會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第9~11代 會長
(株)曉星 會長
▷ '05. 2. ~



朴 泰 俊
PARK Tae Joon

第1~3代 會長
POSCO 名譽會長
▷ '81. 2. ~ '88. 10.

名 譽 會 長



朴 龍 學
PARK Yong Hak

第4~6代 會長
(株)大農 名譽會長
▷ '88. 10. ~ '98. 2.



金 相 廈
KIM Sang Ha

第7~8代 會長
三養社 Group會長
▷ '98. 2. ~ '05. 2.

顧 問



孫 京 植
SOHN Kyung Shik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 '05. 11. ~



司 空 壹
SAKONG II

韓國貿易協會
會長 ▷ '09. 2. ~



金 基 文
KIM Ki Mun

中小企業中央會
會長 ▷ '07. 3. ~



李 熙 範
LEE Hee Beom

韓國經營者總協會
會長 ▷ '10. 9. ~

副 會 長

※ 選任年度 및 성명 가나다 順



崔 用 權
CHOI Yong Kwon

三煥企業(株)
會長 ▷ '95. 2. ~



徐 敏 錫
SUH Min Sok

東一紡織(株)
會長 ▷ '96. 6. ~



趙 亮 鎬
CHO Yang Ho

(株)大韓航空
會長 ▷ '96. 6. ~



羅 應 燦
RA Eung Chan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 '98. 4. ~



金 昇 淵
KIM Seung Youn

(株)HANWHA
會長 ▷ '00. 2. ~



金 熙 勇
KIM Hi Yong

東洋物産企業(株)
會長 ▷ '00. 2. ~



李 運 珩
LEE Woon Hyung

(株)世亞製銅
會長 ▷ '00. 2. ~



禹 石 亨
WOO Suk Hyung

(株)SINDOH
會長 ▷ '04. 2. ~

副會長

※ 選任年度 및 성명 가나다 順



金 鈞

KIM Yoon

(株)三養社
會長 ▶ '05. 6. ~



柳 津

RYU Jin

(株)豊山
會長 ▶ '05. 6. ~



朴 三 求

PARK Sam Koo

錦湖 ASIANA GROUP
會長 ▶ '05. 6. ~



辛 東 彬

SHIN Dong Bin

LOTTE GROUP
會長 ▶ '05. 6. ~



具 本 俊

KOO Bon Joon

LG電子(株)
副會長 ▶ '07. 3. ~



李 潤 雨

LEE Yoon Woo

三星電子(株)
副會長 ▶ '08. 6. ~



鄭 俊 陽

CHUNG Joon Yang

(株)POSCO
會長 ▶ '09. 5. ~



朴 容 炫

PARK Yong Hyun

(株)斗山
會長 ▶ '10. 12. ~

副會長

常任理事

※ 選任年度 및 성명 가나다 順



玄 在 賢

HYUN Jae Hyun

東洋GROUP
會長 ▶ '10. 12. ~



金 正 守

KIM Jung Soo

(株)JS & F
會長 ▶ '08. 2. ~



文 奎 榮

MOON Kyu Young

亞洲GROUP
會長 ▶ '08. 2. ~



黃 昊 均

HWANG Ho Kyoon

(株)Nature Republic
副會長 ▶ '08. 2. ~



孫 鳳 洛

SOHN Bong Rak

(株)TCC東洋
會長 ▶ '08. 3. ~



李 一 揆

LEE Il Kyu

Best Western Korea
會長 ▶ '08. 3. ~



鄭 榮 鉉

JUNG Young Hyun

(株)天馬
顧問 ▶ '08. 3. ~



金 英 大

KIM Young Tae

大成産業(株)
會長 ▶ '10. 11. ~



朴 仁 求
PARK In Gu

東遼 GROUP
副會長・'10. 11. ~



尹 東 漢
YOON Dong Han

韓國KOLMAR(株)
會長・'10. 11. ~



李 洙 喆
LEE Soo Chul

(株)Chemcross international
會長・'10. 11. ~



李 完 根
LEE Wan Keun

新盛HOLDINGS
會長・'10. 11. ~



張 世 宙
CHANG Sae Joo

東國製鋼(株)
會長・'10. 11. ~



崔 在 昊
CHOI Jae-Ho

三南石油化學(株)
社長・'10. 11. ~

監 事



辛 永 茂
SHIN Young Moo

法務法人世宗
代表辯護士・'97. 2. ~



朴 南 淑
PARK Nam Sook

교세이國際特許情報(株)
代表・'10. 12. ~

專務理事



李 鐘 允
Rhee Chong Yun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11. 1. ~

한일경제협회 30년 화 보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한일경제협회 30년 화보

01_한일경제협회 창립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창립총회 전경(1981)



| 총회에 참석하는 정주영 고문(전경련 회장)



| 이건희 부회장
(삼성그룹 부회장) 등
회장단과의 간담



| 개회인사 하는 박태준 회장



|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



| 김원기 고문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인사



| 창립기념 만찬회

02_경제인교류협력 사업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13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1981)



개회인사하는 박태준 회장



개회식(좌로부터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창순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나야마 요시히로 경단련 회장, 히다카 테루 일한경제협회 회장)



개회식(좌로부터 신병현 부총리, 한사람 건너 정주영 전경련 회장, 유기정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측 부단장(김우중 부회장, 박대진 부회장, 박용학 부회장, 이맹기 부회장)



양측 단장단의 오찬교류회



환영리셉션(좌로부터 히다카 테루 일본측 단장, 신병현 부총리, 박태준 한국측 단장, 이나야마 요시히로 경단련 회장)



이나야마 경단련 회장과 담소하고 있는 이건희 부회장(삼성그룹 부회장)



| 한일재계인사교류(좌로부터
아카자와 쇼이치 후지쯔 부사장,
박태준 회장, 고토 노보루 동경상
의 부회장)



|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하는 양측 단장



| 공동성명 협의하는 한국측 단장단



| 15회 회의에서 김준성 부총리와 한일재계인사(1983)



| 15회 회의 종료 후 한일친선교류활동



| 18회 회의 내빈으로 참석한 이규호 주일대사(1986)



| 18회 회의 전경



| 19회 회의. 제주도 제동목장에서
의 옵션행사(왼쪽부터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회장, 이시하라 타카시
닛산자동차 회장, 송인상 동양
나일론 회장, 한사람 건너 우메다
젠지 가와사키중공업 상담역.
1987)



개회식을 진행하는 양측단장(박용학 단장, 스기우라 빈스케 단장)



옵션 프로그램으로 제주 민속촌을 찾은 일본 대표단



21회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양측 대표단 부인들(1989)



리셉션에 참석한 한승수 상공부 장관



Ⅰ 23회 회의. 환영리셉션에서의 한일정재계인사(좌로부터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사이토 에이시로 경단련 명예회장,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야나기 겐이치 주한일본대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박용학 단장)



Ⅱ 개회식에서의 한일 양국 단장단



Ⅲ 25회 회의. 기자회견하는 양측 단장(박용학 회장, 하구라 노부야 회장. 1993)



| 회의 종료 후 경주 벚꽃 단지를 방문한 대표단들



| 26회 회의. 개회식 축하하는 공로명 주일한국대사(1994)



| 기조강연을 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994)



| 28회 회의. 기조연설하는 토요타 쇼이치로 경단련·도요타 자동차 회장(1996)



| 30회 회의. 기조연설하는 구평희 한국무역협회 회장(1998)



| 32회 회의. 모리 요시로(森 喜朗) 일본수상을 예방한 한국측 단장단(2000)



| 개회식에서의 한국측 단장단



| 개회식에서의 일본측 단장단



리셉션에서의 한일 양국 단장의 건배 (김상하 회장, 후지무라 마사야 회장)



산업분과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후카가와 유키코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



31회 회의. 공동성명을 협의하고 있는 한국측 단장단(왼쪽부터 이춘림 현대종합상사 상임고문, 양재봉 대신증권 회장, 김상하 단장, 이맹기 대한해운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 한일 중견경제인교류에 대해 보고하는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



| 33회 회의. 기조강연하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2001)



| 37회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한일 내빈·단장단(좌로부터 이마미 타카시 신일본제철 명예회장, 타카노 토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세토유조 단장, 한덕수 부총리, 조석래 단장, 박태준 명예회장, 김상하 명예회장. 2005)



| 특별공로상을 받는 박태준 명예회장



| 기조강연 하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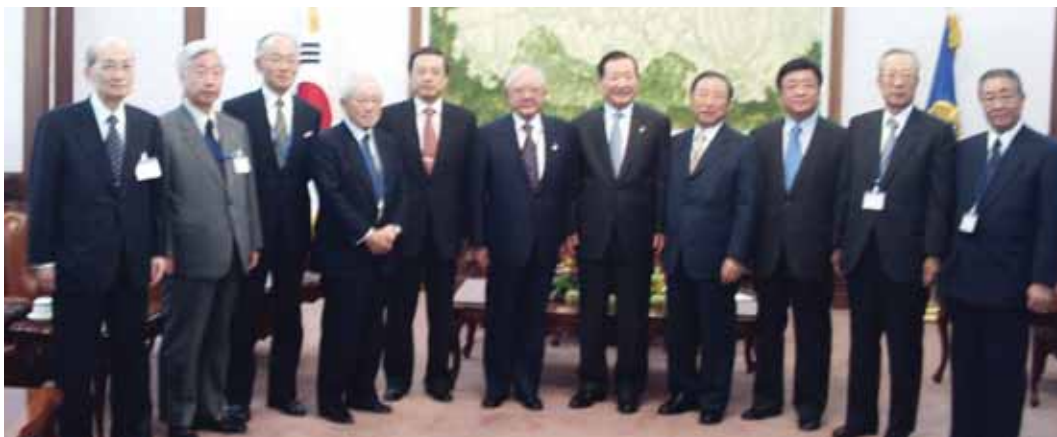
| 제2분과회에서 발표하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전 문화부 장관



| 37회 회의 개회식 전경(2005)



| 환영리셉션에서 대표단을 맞이하는 이명박 서울시장(2005)



|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한
일본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포옹하는
양국 단장(조석래 회장,
세토 유조 회장)



남이섬을 방문한 대표단 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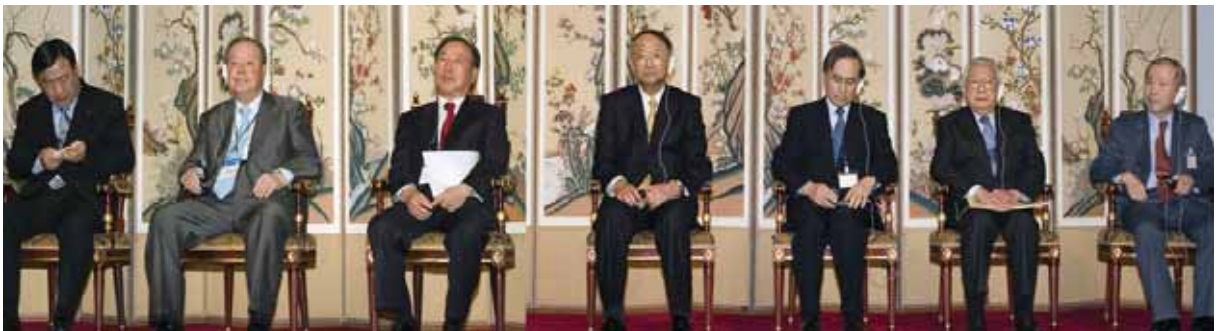
축사하는 타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2006)



개회식 양국 단장 및 내빈



|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한 일본 단장단(2007)



| 개회식 단상의 양국 단장 및 내빈(좌로부터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상하 명예회장, 조석래 단장, 이이지마 히데타케 단장,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세토 유조 명예회장, 하타케야마 노보루 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



|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와 전·현직 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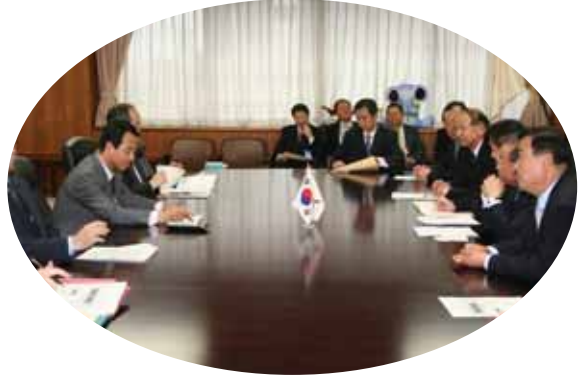
|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양국 단장단



| 40회 회의.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총리를 예방한 한국측 단장단(2008)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正彦) 외무대신 예방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경산대신을 예방하고
한일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국측 단장단



40회 회의.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는 김상하 명예회장과 세토 유조 명예회장



기념강연을 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리셉션장에 입장하는
양국 단원들



리셉션에서 환담하는 양국단장 부인



2세션 회의에서의 한국측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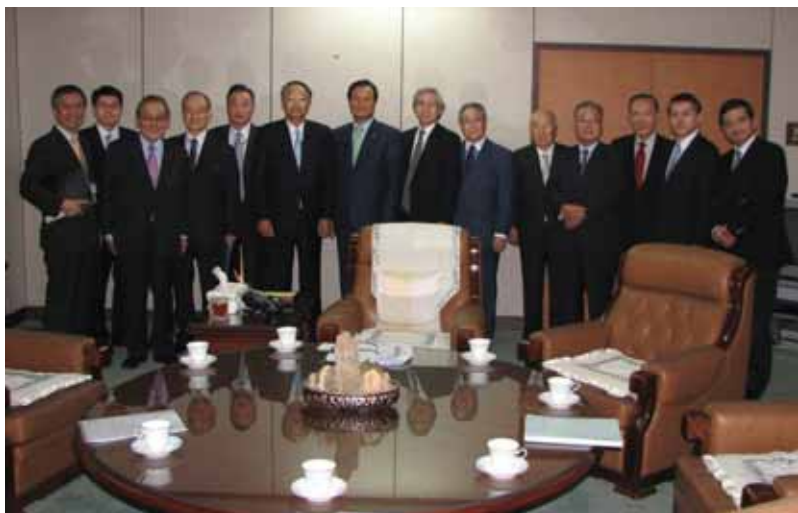


41회 회의.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일본 대표단 / 전시회 방문, 회의장 전경(2009)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일
간 협력에 대해 간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한 일본측 단장단



부품소재전시회에 일본대표단 참석



개회식전 내빈 상견례



41회 개회식 전경(2009)



일본측 내빈(좌로부터 이이지마 히데타케 단장, 타카이치 사나에 경산성 부대신,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학대학원 교수, 하야시 야스오 JETRO 이사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축사



리셉션에서 양국의 우호협력을 건배하는 양국 단장
(왼쪽부터 이이지마 히데타케 단장, 조석래 단장)



기자회견 중 의견을 조율하는 양국 단장



부인프로그램 견학 활동



○ 오카다 카츠야(岡田 克也) 외무대신을 예방하고 한일협력에 대해 환담하는 한국단장단(2010)



○ 나오타마 마사유키(直嶋 正行) 경산대신 예방·간담



○ 주일한국대사 주최 만찬회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조석래 단장



○ 권철현 주일한국대사 주최 만찬회에 참석한 한국단장단



| 양국 공동주최 환영리셉션 전경



|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 기조강연하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 커피브레이크



| 오카야마현 특산물 코너



| 양국단장 기자회견



| 제1회 한일 장기구상연구위원회 개최(가운데 박대진 위원장 1981)



| 아키다 겐조 일본측 장기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 2회 장기구상연구위원회 회의(1982)



| 박태준 회장과 연구위원회 위원과의 간담



Ⅰ 6회 한일장기구상연구위원회 환영교류회(왼쪽부터 박용학 위원장, 아키다 겐조 위원장,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미카나기 기요히사 주한일본대사, 정주영 전경련 회장, 1985)



Ⅰ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부품소재전문위원회 개최(2009)



Ⅰ 11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전경(2009)

03_세미나 · 경제교류미션 사업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일본기업경영세미나 개최(1983)



| 일본기업경영세미나 한일 발표자와 토론자들



컴퓨터이용 최신인쇄기술 세미나
개최(1984)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 양국 재계 인사(1986) (좌로부터 우메다 겐지 가와사키중공업 회장, 우에다 미쓰오 닛쇼이와이 회장, 미카나기 기요히사 주한일본대사, 스기우라 빈스케 일한경제협회장, 박태준 회장, 정주영 고문, 이맹기 부회장)



2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측 토론자들(좌로부터 이종운 외대교수, 한사람 건너 조규하 전경련 전무,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김정 한화재단 사장, 김도형 KIET 일본경제연구센터 소장)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20주년 기념 세미나 초청 내빈들(우로부터 정주영 전경련 회장, 우에다 마쓰오 닛쇼이와이 회장 이만섭 국민당총재, 김만제 부총리, 금진호 상공부장관, 스기우라 빈스케 일한경협회장, 박태준 한일경협 회장, 우메다 겐지 가와사키중공업 회장)



일본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조사단 방한 한일 재계인사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금호그룹의 박성용 회장 (198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조사단 환영 만찬회(좌로부터 스키우라 빈스케 회장, 나웅배 상공부장관, 박태준 회장, 정주영 고문, 박용학 부회장, 우에타니 히사미쓰 부회장)



방한한 일본의 6차 5개년계획조사단과의 오찬교류회에 참석한 한국재계인사(우로부터 이건희 부회장, 조중훈 부회장, 박태준 회장, 박용학 부회장, 김우중 부회장)



일본의 6차 5개년계획조사단 환영만찬회에서 사이토 경단련 회장과 인사하는 정주영 고문



방한국경제교류촉진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쓰오 다이이치로 단장(마루베니 회장)의 기자회견(1987)



정주영 고문(전경련 명예회장)을 예방하고 간담을 나누고 있는 방한국경제교류촉진단 단장단(좌로부터 마쓰오 다이이치로 단장, 정주영 고문, 아카자와 쇼이치 JETRO 이사장, 고토 노보루 일본상의 회장, 박태준 회장) (1987)



방한국경제교류촉진단 환영회에서 입례하고 있는 양측 단장단



서울올림픽 이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인사하는 박용학 회장 (1988)



서울올림픽 이후의 경제전망세미나 모습